

◎ 옛이야기를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학년 _____ 반, 이름 _____

옛날, 어느 고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. 사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. 사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. 이방은 사또가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.

찬 바람이 부는 겨울날, 사또는 갑자기 산딸기를 먹고 싶었습니다.

“여봐라, 당장 산딸기를 따 오너라. 지금 당장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!”

사또의 명령을 들은 이방은 걱정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.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.

이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. 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여쭙어보았습니다. 이방은 사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

“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?”

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에 이방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.

“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다녀오겠습니다.”

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.

“아버지께서 앓아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.”

“이방이 아프다고? 음, 피병을 부리는구나. 네 아비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.” 이방의 아들은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.

“아닙니다.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독사한테 물리셨습니다. 그래서 산딸기를 따 오지 못하셨습니다.”

“이 녀석!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?”

사또가 어이없다는 듯이 꾸짖었습니다.

“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.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.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습니다.”

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였습니다.



Q 이방이 병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Q 이방의 아들은 사또에게 찾아가 어떤 말을 했나요?

Q 사또는 왜 이방의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요?

Q 이 이야기에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?